

## 노년기 회상(reminscence)기능에 관한 성차 연구

홍 주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회상의 다양한 기능을 구분하여 한국정서에 적합한 노인 회상기능 척도를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노년기 회상기능의 성차를 알아보았다. 노인 회상기능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개방식 질문과 문헌연구, 그리고 기존 외국척도를 바탕으로 노인 회상기능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여 60세 이상 재가 노인 295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구인 타당도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9개 요인에 대한 27개 문항이 추출하였다. 노년기 회상기능에 대한 남녀 노인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회상 빈도의 추정치인 노인 회상기능 총점과 노인 회상기능의 9개 하위요인의 평균치에서 남녀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회상빈도, 무료함 감소, 회한, 부재자 갈망, 회피, 죽음대비, 문제해결요인의 회상 빈도는 여자 노인들이 더 높은 반면 자아탐색, 전수, 대화 요인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의 빈도가 더 높았다.

“그들은 희망보다는 기억으로 산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 비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 Aristotles -

급진적인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늘  
날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이상

을 차지함으로써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으며  
오는 2022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이 나날이 증가해 가는 노인 인구 중에서 여성 노  
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이르러 노인 문제는 곧  
여성 노인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통계청,  
2000).

노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과정  
이고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쇠,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역할상실이 뒤따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에 적용하는 성공적인 노화는 개인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성공적인 노화는 노년기 자아 통합감으로 대표될 수 있다(한성열, 1990). 자아 통합감이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로 보고 수용하며 인생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Erikson, 1997). 노년기 회상은 이러한 자아 통합감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Butler, 1963; Hamachek, 1990). 실제로 Bacher(1991)와 Graves(1995)는 회상을 통해 노년기 우울감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Boylin(1994), 정영(1994)은 회상이 자아 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Nehrke(1991)와 Cook(1991)는 회상과 자아 통합감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Taffieri(1997)는 회상이 다른 방법에 비해 유의하게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하는가? 이는 회상에 대한 일치된 개념적 정의가 없으며 회상을 다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일한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Taft & Nehrke, 1995; Webster & Haight, 1995). 즉, 많은 연구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재생하는 단순 회상과 인생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인생회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연구했기 때문에 회상에 대한 상이한 결과들이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회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구분하여 그 구성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정서에 적합한 노인회상기능척도를 제작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의 성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1. 회상의 기능

회상은 개인의 회상 목적, 즉 왜 회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회상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상의 기능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oss & Buehler, 1994). Taft와 Nehrke(1990)는 회상과 노년기 적용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 회상의 빈도와 적용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자아 통합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상의 빈도보다는 회상의 목적, 즉 기능이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회상기능에 대한 구분은 Coleman(1974)이 처음 제안하였다. 그는 회상을 과거 사건을 현재의 자기를 유지시키고 고양시키는 근원으로 보는 단순회상,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역사적 시간이나 사건들과 관련된 기억을 나누어줌으로써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 제공적 회상,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아상의 통합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된 기억을 분석하는 인생회고로 구분하였다.

또한 Romaniuk 와 Romaniuk(1981)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구성된 13문항의 회상사용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회상의 기능을 자존감 향상기능, 문제해결기능, 그리고 실존적 자기 이해의 기능으로 나누었다. 이 척도는 회상기능을 처음으로 척도화 시켰는데 의의가 있다.

그후, Wong과 Watt(1991)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축어 회상록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통합적, 도구적, 전수적, 도피적, 강박적, 슬회적 회상을 유출하였다. 그들은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회상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 갈등의 해결, 과거와 현재의 통합을 포함하는 통합적 회상, 그리고 건설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도구적 회상이며 과거 불쾌한 사건을 계속 되새기는 강박적 회상은 성공적 노화와 역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 분류 체계는 회상의 경험적인 측면을 다면적으로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평정자 신뢰도와 검사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근래 Webster(1993, 1998)는 회상의 기능에 대한 43 문항의 지필 검사를 제작하여 700명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루함 감소, 죽음에 대한 준비, 정체감, 문제해결, 대화, 친밀성 유지, 상처 되새김, 정보제공의 여덟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Webster의 회상기능척도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여러 요인을 추출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 연구자별 회상기능의 분류

회상기능	연구자			
	Coleman (1975)	Romaniuk (1981)	Watt & Wong (1991)	Webster (1993)
1. 인생의 의미 발견	인생회고	실존적	통합적	정체감
2. 과거 경험으로 현재문제 해결		문제해결	도구적	문제해결
3. 과거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전수적	정보제공
4. 서술적 이야기	단순	자존감 향상	서술적	대화
5. 현실 도피			회피적	지루함 감소
6. 피로운 과거에 대한 강박적 생각	강박적		강박적	상처되새김
7.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 대비
8.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한 기억유지				친밀감 유지

위 연구자들의 회상기능에 대한 분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회상의 기능에 대해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그 구분이 연구자들간 상당히 겹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상에 대한 분류가 단지 이론적으로 유추된 공론이 아니라 회상에 대한 실질적인 구분임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 2. 회상기능에 대한 성차

회상에 대한 그간 연구들은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회상기능과 내용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oleman(1974)은 남자는 여자보다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를 자주 하는 반면 여자들은 가족에 대한 대화를 훨씬 자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자에게서는 증가하지만 여자에게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가족에 대한 대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자에게서

는 증가하지만 남자에게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자발적인 대화를 분석한 한성렬(199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회상을 주로 단순히 이야기하기 및 현재 진행중인 화제와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남자노인의 경우 '생애개관'보다는 '현재의 자기 유지 및 고양'을 위하여 회상을 자주 하는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현재의 자기 고양' 보다는 '생애개관'을 위하여 회상을 자주 이용하였다. 노인들이 회상을 이야기하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은 자발적인 대화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생애개관이 비교적 적게 사용된 대화의 주제로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생애개관과 같은 깊은 수준의 자기노출이 필요한 회상은 이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타인과 공유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생각도 회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회상기능에 대한 연구는 대화를 통한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회상기능에 대한 지필 검사를 이용한 Webster(1995)의 연구에서도 남녀가 성차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회상빈도에 있어서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더 여자들이 회상을 많이 하였으며 생애개관과 유사한 자아 정체감 기능, 단순 이야기하기의 대화 기능, 그리고 지난 간 사람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친밀감 유지기능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ebster(1995)의 연구에서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회상기능의 남녀 차이에 대한 것이며 노년기 회상기능의 성차는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년기를 중심으로 회상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성차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 3. 회상기능에 대한 문화적 차이

Wallace(1992)는 노년기 회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인간의 경험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 회상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이은정, 1998)에서 회상의 주제가 삶의 회한, 한의 삭임, 힘의 확인, 그리고 삶의 보람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척도를 그대로 번안 수정할 경우, 한국 고유의 회상기능을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구의 연구에서도 자국 인종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eriam(1993)이 조지아 백세 연구의 흑인과 백인 참여자 291명에게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회상사용척도를 실시한 결과 17개 문항 중 9개의 문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종차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흑인들은 인생과 자신, 그리고 주변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업적과 과거 상황을 타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백인보다 회상을 월등히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인종차는 흑인들의 구두 전통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 Webster(1998)는 캐나다의 백인과 중국인의 회상기능을 비교한 결과 상처되새김, 지루함 감소, 죽음에 대한 준비,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인종차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회상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회상기능 검사가 요구된다.

## 문제제기

서구에서는 1990년 이후 회상에 대한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몇 편의 논문들(전시자, 1989; 한성렬, 1990; 정영, 1994; 하양숙, 1995; 이은정, 1997)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회상의 개념을 분석하거나 이를 토대로 회상의 다면적인 차원을 측정하는 회상기능에 대한 척도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식 질문과 문헌연구, 그리고 기존의 외국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노인 회상 기능 검사를 제작하여 노년기 회상 기능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노년기 회상기능의 성차를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노인회상기능척도의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60세 이상 성인 200명에게 개방식 질문지를 배부 83부(41.5%)를 회수하였으나 18부는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총 65부가 분석되었다.

기초 조사에서 분석된 대상의 평균 연령은 65.89세였으며 여성이 48명(73.8%), 남성이 17(26.35%)이었으며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평균은 3.2(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였으며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130만원이었다.

노인회상기능척도의 제작은 60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200명과 70세 이상 재가 노인 200,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한국판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1989, 박중환)를 기준으로 인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검사는 본인이 참여할 의사를 보인 노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 중 13.25%는 본인이 직접 반응을 기입하였고 나머지 86.75%는 면접을 통해 질문을 낭독해주고 이에 대한 대상의 반응을

연구자가 기입하였다. 그러나 19.5%는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고 또 10.5%는 불성실하게 답하여 26.25%가 제외되어 노인 회상기능 척도 제작에는 295부(74.75%)가 분석되었다.

본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여자가 63.1%, 남자가 37%였으며 이는 60세 이상 노인의 실제 성비인 여자 57%, 남자 43%에 근접한 비율이다(한국통계연감, 1998). 연령대별로 60대가 53.56%, 70대가 46.44%이었으며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9.55세였다. 또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관적 평가의 평균은 2.86(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100만원 미만 31%, 100에서 200만원 41.2%, 200만원 이상은 27.8%로 경제 수준은 고루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은 무학 16% 초 등졸 30.4%, 중학교 졸업이 13.1%, 고등학교 19.4%,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이 20.5%로 60세 이상 연령대의 54%가 무학임을 감안할 때(한국통계연감, 1998) 연구 대상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절차

노인 회상기능 척도의 제작을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접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설문에 들어가기 전 설문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며 대상자가 직접 기입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자 또는 연구 보조원이 질문을 낭독해주고 이에 대한 반응을 기입하였다. 설문 소요되는 시간은 대상에 따라 약 20분에서 40분이었으며 건강상태와 상황에 따라 이들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노인 회상기능 척도와 함께 개인적 배경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 3. 측정도구

노년기 회상기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들이 왜 회상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노인들에게 적합한 회상기능 척도를 제작하였다.

우선, 회상기능척도의 제작을 위해 60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자유 응답식 설문을 하여 7개 유목

의 37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발달심리전문가에게 그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다음, Webster(1993)의 회상기능척도와 Merriam(1993)의 회상사용척도를 요인별로 나누어 8개 유목의 44문항에 대해 번역과 역번역 작업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제작은 기존 외국 척도와 자유응답식 설문을 통해 얻은 문항들을 통합하여 총 9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9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별로 문항들의 수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문항들을 새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54개의 문항이 작성되었다.

노인을 전공한 발달심리전문가 2인과 2인의 심리학 교수에게 문항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표현이 어색하거나 명료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다시 자연스럽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검토 후, 60세 이상 노인 4인이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좀 더 우리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대처하였다.

### 4. 분석

일차적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총점 상관이 .3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평균이 1.5미만, 표준편차가 1 미만인 문항도 제거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다음, 노인 회상기능척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 문항분석 이후 남은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외국척도와 조사연구를 통해 잠정적으로 구성요인이 9개였으나 일단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누적 분산비율, 스크리 검사등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분산은 다중상관 제곱치(SMC)를 사용하였다. 요인구조의 회전은 요인의 확인과 해석에 용이한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인 회상기능과 남녀 성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ANOVA(F)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노인회상가능척도의 구성요인분석

노인회상가능척도의 구성개념을 검증하기 앞서 1차 문항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개념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한 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53개의 문항에 대해 공통요인 분석법을 사용하여 구성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요인 분석결과 요인별 고유치, 설명변량 퍼센트는 표 2와 같다.

누적 분산 비율, 설명분산비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9개 요인을 추출할 때, 전체 공통분산 가운데 설명되는 공통분산의 비율은 89%이다. 또한 각 구성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계수가 .3 미만인 문항, 어느 요인 속에도 속하지 않은 문항 4개, 해석이 어려운 문항 13개가 제외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요인계수를 9개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검사 실시 과정 중, 대다수의 노인들이 문항수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출된 9개 요인

을 유지시키면서 검사를 최대한 짧게 제작하기 위해 9개요인 각각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은 3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27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7개의 축소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9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R5 문항이 37개 문항을 요인 분석했을 때 죽음 대비 요인에 더 높게 요인 부하량을 보인 반면 27개 문항으로 요인분석 했을 때에는 자아탐색요인에 더 높게 부하(.45)되었다. 그러나 문항 내용상 죽음 대비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죽음 대비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아주 낮은 정도(.39)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문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문항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과 요인명은 <표 4>와 같다.

### 2. 노인회상가능에 관한 성차

노인회상가능에 대한 남, 녀 노인의 성차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회상가능의 총점과 각 하위 요인별 점수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2. 예비-노인 회상가능 척도의 단일주축분해결과

축소상관행렬의 고유치의 총합: 27.4858(전체공통분산)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고유치	10.2112	3.1142	2.5017	1.7334	1.3336	1.1195
설명분산비율	0.3970	0.1211	0.0973	0.0674	0.0519	0.0466
누적분산비율	0.3970	0.5181	0.6154	0.6828	0.7346	0.7813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요인11	요인12
고유치	1.0349	0.9342	0.8469	0.7079	0.6469	0.6196
설명분산비율	0.0402	0.0363	0.0329	0.0275	0.0253	0.0241
누적분산비율	0.8215	0.8578	0.8908	0.9183	0.9435	0.9676

\*요인을 9개까지 취하면 설명되는 전체 공통분산은 약 24.46(누적분산비율은 89%)

표 3. 노인 회상기능 척도의 27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 인 계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R38	<u>0.77461</u>	0.06971	0.00170	0.08586	0.12908	0.14074	0.14993	0.06611	-0.00194
R27	<u>0.71823</u>	0.09956	0.04721	0.20836	0.13045	0.18940	0.08010	0.04151	0.17147
R14	<u>0.70221</u>	0.16890	-0.09065	0.18444	0.06189	0.05460	0.09892	0.08606	0.03678
R23	0.13173	<u>0.47739</u>	0.12774	0.25604	-0.03040	0.12875	0.08422	0.07344	0.15668
R24	0.10762	<u>0.47594</u>	0.09295	0.20957	0.09946	-0.01674	0.30747	0.10010	0.04352
R5	0.04971	<u>0.45011</u>	0.06822	0.21072	0.01948	0.16434	-0.11734	<u>0.39039</u>	0.01370
R54	-0.03058	-0.06715	<u>0.68903</u>	0.07872	0.17492	0.01491	0.20487	0.10645	0.11573
R44	-0.05119	0.23595	<u>0.64528</u>	0.00895	0.13428	0.18901	0.01235	-0.03017	0.11968
R35	0.03327	0.12507	<u>0.61210</u>	0.07808	0.14499	0.03778	0.06801	0.10074	-0.00558
R8	0.11031	0.07350	0.04629	<u>0.65252</u>	0.06193	0.09548	0.09498	0.06916	0.02290
R34	0.21878	0.11401	0.06960	<u>0.61633</u>	0.17092	-0.11231	0.10009	0.11180	0.01456
R21	0.16709	0.33296	0.03214	<u>0.60590</u>	-0.06965	0.06706	0.04211	0.13001	0.09476
R50	0.14651	0.02181	0.11211	0.03883	<u>0.69149</u>	0.06822	0.08884	-0.01512	0.08304
R31	0.09506	0.01983	0.22994	0.08822	<u>0.62622</u>	0.19887	0.01011	0.05004	-0.03978
R52	0.05349	0.13631	0.16104	0.03738	<u>0.60199</u>	0.14592	0.32731	0.03895	0.11546
R19	0.18142	0.16781	0.08432	0.12345	0.09189	<u>0.58757</u>	0.06448	0.09152	0.02588
R42	-0.04632	0.08313	0.07315	-0.03101	0.12266	<u>0.56242</u>	0.10825	0.09663	0.10584
R51	0.26743	-0.00457	0.05799	0.01340	0.13928	<u>0.50496</u>	0.07746	0.00439	0.15527
R29	0.10974	0.11842	0.06743	0.07300	0.14067	0.17533	<u>0.51575</u>	0.08691	-0.02494
R15	0.12382	-0.09044	0.17267	0.06599	0.12689	0.11921	<u>0.50615</u>	0.02444	0.19991
R28	0.42812	0.23777	0.10685	0.25153	0.02067	-0.06996	<u>0.47472</u>	0.13520	-0.04493
R49	0.05039	0.10674	0.16628	0.18779	-0.00492	0.12875	0.03979	<u>0.66579</u>	0.07756
R30	0.16968	0.07015	0.00039	0.04012	0.07202	0.03896	0.32399	<u>0.51588</u>	0.13778
R37	0.11168	0.21011	0.02387	0.10135	0.13367	0.10530	0.14260	0.09505	<u>0.49097</u>
R26	-0.01410	0.34926	0.21811	0.15819	-0.05308	0.18445	-0.07832	0.16658	<u>0.44018</u>
R46	0.08094	0.05236	0.28770	-0.10470	0.04549	0.27895	0.07576	0.06246	<u>0.38211</u>
고유치	5.5562	1.9186	1.5113	1.0691	0.7659	0.6532	0.6214	0.4899	0.4009
설명분산	0.4812	0.1662	0.1309	0.0926	0.0663	0.0566	0.0538	0.0424	0.0347
누적분산	0.4812	0.6473	0.7782	0.8708	0.9371	0.9937	1.0475	1.0899	1.1246

<표 4> 노인 회상기능 척도의 요인명칭,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alpha$ ).

---

---

요인 1	무료함 감소 ( $\alpha = .83$ )
	38. 지루할 때 시간을 보내려고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14. 별일 없을 때 옛날 일을 생각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27. 할 일 없을 때 소일거리로 옛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인 2	자아 탐색( $\alpha = .63$ )
	23.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회상하는 경우가 있다.
	24.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 위해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1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경우가 있다.
요인 3	전수( $\alpha = .75$ )
	54.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35.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44. 내가 아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인 4	회한 ( $\alpha = .74$ )
	34. 바보처럼 회생한 날들이 억울해서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8. 과거 고생한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와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21. 놓쳐버린 인생의 기회가 너무 아쉬워 그때 일을 회상하는 경우가 있다.
요인 5	대화 ( $\alpha = .76$ )
	50.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문이 터진다.
	31. 옛일을 이야기하면 서로 더 친한 느낌이 들어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52. 동년배와 옛일을 이야기하면 서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인 6	부재자 갈망( $\alpha = .63$ )
	19.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서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42.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기 않기 위해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51.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인 7	회피 ( $\alpha = .60$ )
	15. 과거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기 위해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29.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28. 울적할 때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과거를 떠올릴 경우가 있다.
요인 8	죽음 대비( $\alpha = .63$ )
	49.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준비하기 위해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30.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죽는다는 것이 담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과거를 짚어보는 경우가 있다.
	5.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은 지금,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가 있다.
요인 9	문제해결 ( $\alpha = .58$ )
	37.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경우가 있다.
	26.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기 위해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46. 과거 큰 일을 잘 극복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

---

전체 문항 수 : 27

전체 신뢰도 :  $\alpha = .87$



&lt;표 5&gt; 노인회상기능의 총점과 하위점수에 따른 남녀차이검증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총점	남	55.06	9.99	5.19*
	녀	56.31	9.41	
자아 탐색	남	6.71	1.77	7.84***
	녀	6.63	1.64	
무료함 감소	남	5.77	1.66	5.86**
	녀	5.97	1.86	
전수	남	6.72	1.88	8.02***
	녀	6.29	1.86	
회한	남	6.46	1.65	9.53***
	녀	7.05	2.05	
대화	남	6.31	1.79	7.77***
	녀	6.04	1.57	
부재자 갈망	남	6.32	1.56	9.28***
	녀	6.67	1.72	
회피	남	5.86	1.83	8.11***
	녀	6.47	2.02	
죽음 대비	남	6.37	1.83	11.02***
	녀	6.91	1.64	
문제 해결	남	6.24	1.77	6.79***
	녀	6.30	1.66	

\*p&lt;.05 \*\*p&lt;.01 \*\*\*p&lt;.001

전반적인 회상 빈도의 추정치인 노인 회상기능 총점과 노인 회상기능의 하위 요인의 평균치 모두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회상 빈도, 무료함 감소, 회한, 부재자 갈망, 회피, 죽음대비, 문제해결에 대한 회상의 빈도는 여자 노인들이 더 높은 반면 자아탐색, 전수, 대화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들의 빈도가 더 높았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회상기능 검사를 개발하여 노인 회상기능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노년기 회상기능의 성차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식 질문과 외국의 기존 척도를 바탕으로 노인 회상기능에 대한 항목들이 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9개 요인으로 구성된 노인 회상기능 척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노인 회상기능척도의 하위 요인은 무료함 감소, 자아탐색, 전수, 회한, 대화, 부재자 갈망, 회피, 죽음 대비, 그리고 문제해결로 명명하였다. 요인들을 살펴보면 무료함 감소는 주변 환경에 적절한 자극이 없거나 한가할 때 과거 생각을 함으로써 시간을 보내는 기능을 말하여 자아탐색은 일관된 자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능을 말한다. 전수는 상대방의 적응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이룩하지 못한 꿈,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억울함 마음을 되새기는 기능을 말한다. 대화는 사람들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도모하는 기능이며 부재자 갈망은 현재 회상자의 삶의 일부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회피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과거 기억 속에서 안주하여 위안을 얻고자 하는 기능을 말하며 죽음대비는 회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켜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상기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성공적인 전략이나 상황을 회상하는 기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노인 회상기능 척도는 Webster(1993)의 회상기능 요인과 개방식 반응이 통합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Webster(1993)의 8개 요인이 나타났다. Webster(1993) 무료함 감소 요인에 포함되었던 회피적 요인이 분리되어 단독요인으로 대두하였다. 아울러 상처 되새김의 기능이 회한의 기능으로 개명되었고 그 문항이 단순히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거나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회상을 하는 강박적인 내용에서 진한 아쉬움, 억울함, 그리고 한의 표현으로 대

치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인의 분석을 통해 회상이 단일한 개념이 아닌 다면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문화적 맥락에 따라 회상 요인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년기 회상기능에 대한 남녀 노인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회상기능 총점과 하위 척도 점수 모두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먼저, 회상기능의 총점, 즉 전반적인 회상 빈도의 추정치에 있어서 여자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Webster(1995)가 전 연령대를 실시한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회상빈도에 대한 성차는 아동기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고 Fivush와 Reese(1992)는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들이 여아와 과거에 대해 대화를 할 때 더 정교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반면 남아에게는 단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들은 여아 때부터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한의 기능에 있어서 여자 노인들이 남자 노인들보다 회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Webster, 1995)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성차이다. 서구적 개념의 강박적 회상과는 달리 한국의 회한이란 살아오면서 채우지 못한 인생의 부분이나 잘못된 일을 되돌아보고 아쉬워하고, 억울해 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는 정서와 반응(이은정, 1997)이다. 한국 여자 노인들이 살아온 거친 삶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러한 회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와 반응이 묻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된다.

자아 탐색적 회상을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이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성렬(1990)의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성렬(199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대화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 노인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남성 노인이 자아 탐색적 대화를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신의 대화뿐만 아니라 생각을 포함할 수 있는 지필식 검사가 이러한 내면적이 과정을 더 잘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Havighurst & Glasser, 1972).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문화적,

가족적 지식을 제공하는 전수적 회상의 기능은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이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eman(1974)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를 자주 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대화기능, 즉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간에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도모하는 기능도 남자 노인이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관계를 중요시해온 한국의 풍토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부재자 갈망, 즉 현재 회상자의 삶의 일부는 아닌 사람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은 여자노인들이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정체감이 사회적 관계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Gilligan, 1982)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성공적인 전략이나 상황을 회상하는 문제해결적 회상은 남자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회상이 도구적인 것으로 볼 때 이는 노년기 성역할의 변화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인 타당도가 있는 인지 기능으로서 회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회상 기능을 다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고 그 성차를 알아보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척도는 내용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 외에 집단간 차이를 판별하거나 타 검사와의 상관관을 보는 준거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 회상기능척도를 기준으로 우울집단, 혹은 초기 치매환자를 구분해 보거나 타 척도와의 상관관을 비교하는 척도 타당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윤진(1985).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전시자(1989). 회상의 내용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9, 92-109.
- 정영(1994). 회고요법이 노인의 죽음불안, 자아통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47(2), 1009-1025
- 이은정(1997). 한국노인의 회상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통계청(1998).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통계연감* 45(8) 고령자 편.
- 통계청(2000) '한국의 인구 현황'
- 하양숙(1990). 집단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한성열(1990). 노년기 회상에 관한 성차 연구: 시간적 투자와 회상의 기능 및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 논총*, 20, 57-76.
- Bacher, E. Kindler, S., Scheler, G., & Lere, B (1991). Reminiscing as a technique in the group psychotherapy of depression: A comparative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375-377.
- Boylin, W., Gordon, S. K., & Nehrke, M. F. (1976). Reminiscing and ego integrity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males. *The Gerontologist*, 16, 118-124.
- Butler, R.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 65-76.
- Cook, E.(1991). The effects of reminiscence on psychological measures of ego integrity in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5, 292-298
- Coleman, P. G. (1974). Measuring reminiscence characteristics from conversation as adaptive features of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 281-294.
- Coleman, P. G. (1986). *Aging and Reminiscence Processes: Social and Clinical Implications*. New York: Wiley.
- Erikson, E. H. (1997) *The Life Cyclen Completed*, New York: Norton
- Fivush, R., & Reese, E.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In D.C. Rubin(Eds). *Autobiographical Memor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i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ves, W. (1995). The efficacy of structured reminiscence group psychotherapy as an intervention to decrease depression and increase psychological well-being in female nursing home residents,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Hamacheck, D. (1990). Evaluating self-concept and ego status in Erikson's last three psychosocial stag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July/August ,68, p 677-683.
- Havighurst, R., & Glasser, R., (1972). An exploratory study of reminiscence. *Journal of Gerontology*, 27, 245-253.
- Merriam, S. B. (1993). Uses of reminiscence in older adulthood, *Educational Gerontology*, 19, 441-450.
- Romaniuk, M & Romaniuk, J. G. (1981). Looking back? An analysis of reminiscence functions and triggers, *Experimental Aging Research*, 7, 477-489
- Romaniuk, M & Romaniuk, J. G. (1983). Life events and reminiscence: A comparison of the memories of young and old adults.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2, 125-136.
- Ross, M & Buehler, R (1994). Creative remembering. In Neisser, U. & Fivush, R. (Eds.), *The Remembering Self: Construction and Accuracy in the Self-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ft, L. B. & Nehrke, M. F. (1990). Reminiscence, life review, and ego integrity in nursing home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0(3), 189-196.
- Taffieri, Mary Lou (1997). The effect of reminiscence on the self-esteem of the terminally ill. Western Connecticut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Wallace, J. B. (1988). Reconsidering the life review: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lking about the past. *The Gerontologist*, 32(1), 120-125.

- Watt, L, & Wong, P. (1991). Taxonomy of reminiscence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Counseling*, 12, 270-278.
- Webster, J. D. (199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reminiscence functions scal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8(5), p 256-p262.
- Webster, J. D. (1995). Predictors of reminiscence: A lifespan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n Aging*, 13(1), 66-78.
- Webster, J. D. (1998). Reminiscence functions in adulthood: Age, race, and family dynamics correlates. unpublished material.
- Webster, J. D. & Haight, B. K. (1995) Memory lane milestone: Progress in reminiscenc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Haight, B. & Webster, J.(Eds), *The art and science of reminiscence : Tbeory, research, method and applications*,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Gender Differences in Reminiscence Functions in the Elderly

Choo-yon Ho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object of the present study was two fold. One was to clarify the concept of reminiscence by examining its functions and to construct a Korean-reminiscence functions scale for elderly(K-RFS-E). Second was to compare the gender difference in reminiscence functions. The the items of the reminiscence functions scale for Korean elderly was developed through analyzing existing reminiscence functions scales, and free response survey and were given to 295 people aged over 60 and factor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27 items and 9 factors were extracted. Based on this scale, gender differences were compared and all the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as well as the total reminiscence functions score. Especially, male elderly showed greater frequency in identity exploration, transmission, and conversation whereas the female elderly showed greater frequency in contrition, intimacy maintenance, escapist, death preparation and problem solving factors.